

“자신감·용기 회복 도와… 기업인들 재기 위해 문 활짝”

재기중소개발원 ‘재도전 힐링캠프’

경남 통영 앞바다에 있는 섬 죽도가 실패했다 일어나려는 재기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성지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통영여객터미널에서 배로 1시간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한산면 죽도에 있는 재단법인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이 한때 중단했던 ‘재도전 힐링캠프’의 문을 열면서다.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은 2011년부터 재도전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4주간의 캠프를 1년에 서너 차례씩 진행해 지난해까지 28기에 걸쳐 총 435명의 수료생을 배출, 다시 사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 가운데 56.3%인 245명이 재창업에 성공했다.

1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은 올해 하반기에 29기, 30기 재도전 힐링캠프 참가자들을 모집한다. 교육은 사업에 실패했다 재도전을 하려는 중소기업 경영자, 소상공인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희망하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기수당 25명 안팎이 정원이다.

29기는 오는 10월8일부터 28일까지, 30기는 11월12일부터 12월3일까지로, 죽도에서 3주간 합숙하며 재도전을 준



경남 통영 한산면 죽도에 있는 사단법인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전경.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입교생들이 바다를 보면서 수련을 하고 있다.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재도전 기업인 위한 ‘무료’ 캠프 하반기 두차례 캠프 참가자 모집 수료생 435명 중 245명 재창업

캠프 3주간 1인 텐트서 생활하고 스마트폰·TV 등 외부접촉 불가 “아름 겪은 후배 재기 돕고싶어”



MS코퍼레이션 전원대 회장이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비한다.

시작한지 10년이 훌쩍 넘은 죽도의 재도전 힐링캠프는 과정이 혹독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우선 교육생들은 3주간 1인 텐트에서 생활해야 한다. 평일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외부와의 연락은 불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고 TV, 라디오 등 미디어 접촉도 안된다.

새벽에 기상해 체조, 걷기, 명상을 하고 특정일엔 금식도 해야 한다.

재기중소기업개발원 관계자는 “재도전 힐링캠프는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통해 심리적 상처를 치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교육에 방해되는 요소를 철저히 차단해 교육생들이

캠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과정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교육은 스스로 참여하는 체험식 과정으로 진행한다. 3주간의 교육기간 동안 명상과 묵언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텐트야영, 예코힐링, 100배 절명상, 농활체험, 숲 불경기 등의 과정도 두루 포함돼 있다.

죽도에서 진행되는 재도전 힐링캠프는 한마디로 ‘비움’과 ‘채움’의 연속이다.

그렇다고 ‘극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바람직한 기업가정신을 회복하고 재도전 성공을 위한 사례 학습, 전문가들의 개별 컨설팅도 진행한다.

교육은 종교인, 심리전문가, 기관장, 재도전 교육전문가, 성공한 기업인, 사

회 유명인사 등의 재능기부로 이뤄진다. 무엇보다 3주간의 힐링캠프에서 교육생들이 내야하는 비용은 모두 무료다.

죽도의 폐교를 활용하고 있는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은 부산지역 기업가인 M S코퍼레이션 전원대 회장이 사재를 털어 만든 곳이다.

전원대 회장은 70년대에 자신이 창업한 수소 제조 공장이 폭발, 직원을 잃고 결국 공장을 닫아야 하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 이후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한때 목숨을 버릴 생각까지 했었다. 전 회장이 삶의 끝에서 우연히 만난 곳이 죽도였다.

전 회장은 “나와 같은 패배의 아픔을 경험한 후배 기업인들의 재기를 돕고 싶었다. 그래서 사재를 털어 폐교를 재기중소기업개발원으로 만들었다. 코로나19기간에 중단했던 힐링캠프를 다시 시작하게 돼 기쁘다.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은 다시 일어나려는 이들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죽도의 재기중소기업개발원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언덕에는 ‘묵은 마음 비워서 맑고 둥근 마음만 가득 채워 가는 곳’이라는 의미인 ‘허밀청원’이란 글씨가 있다. 이는 전 회장이 손수 지은 글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中企 84% “자금사정, 작년과 같거나 나빠져”

중기중앙회, 추석자금 수요조사 곤란하다 27%, 원활하다 16% 원인 78% ‘판매·매출부진’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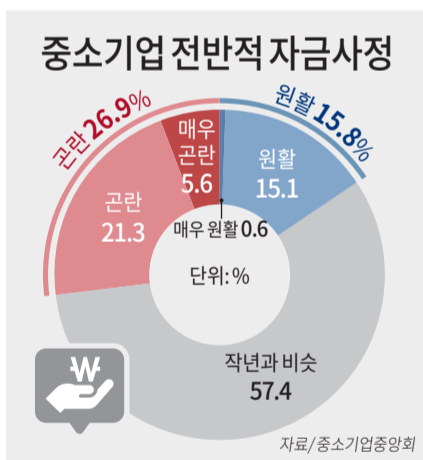
중소기업 대부분의 추석 자금사정이 지난해와 다르지 않거나 나빠진 가운데 평균 1200만원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족한 자금에 대해선 ‘납품대금 조 기회수’가 가장 많은 가운데 ‘대책 없다’는 답변도 10곳 중 3곳에 가까웠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21일부터 9월1일까지 중소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추석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해 10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 지난해 추석에 비해 올 추석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26.9%로, ‘원활하다’는 응답(15.8%)보다 높았다. ‘전년 수준’이란 답변은 57.4%를 차지했다.

자금사정이 곤란한 주요 원인(복수 응답)은 ‘판매·매출 부진’(77.7%)이 압도적인 가운데 ▲인건비 상승(36.7%) ▲원·부자재가격 상승(33%) ▲대금회수 지연(11.6%) 등의 순



이었다.

올해 추석 자금으로 평균 1억1560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자금 대비 부족자금은 평균 1280만원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필요금액(1억5700만원)과 부족금액(2200만원) 모두 감소했다.

모자란 추석자금 확보 방안(복수 응답)으로는 ▲납품대금 조 기회수(44.4%) ▲금융기관 차입(20.4%) ▲결제 연기(19.4%) 순으로 많았다.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도 25.9%였다.

한편, 중소기업 2곳 중 1곳(48.3%)은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상여금 지급 비율이 전년(37.3%) 대비 11%p 증가했다.

상여금 지급 수준은 전년보다 증가해 정월 지급시 기본급의 50%에서 올해 53.7%(+3.7%p)로, 정액 지급시 1인당 40만2000원에서 올해 44만7000원으로 11.2% 각각 늘었다.

응답기업 10곳 중 4곳(39.4%)은 추석 공휴일(9월28~10월1일) 이외에 ‘추가 휴무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추가 휴무기간은 임시공휴일인 10월2일과 개천절(10월3일)을 포함해 평균 1.5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추석 자금수요 규모 감소는 적지 않은 중소기업이 긴축경영을 바탕으로 수출 감소와 내수부진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며 “고금리·유가 상승 등 어려움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내수진작과 수출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중견련, 중견기업 핵심기술 보호 지원강화

기술보호협회와 업무협약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손잡고 중견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전방위 지원을 강화한다.

10일 중견련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협회와 ‘중견기업 보안 역량 강화 및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급증하는 산업기술 유출 사고로부터 중견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중견기업 전용 산업기술 유출 신고 채널 구축, 공동 침해 조사 및

대응, 보안 역량 강화 컨설팅 및 기술보호 교육, 기술 유출 방지 정책·지원 사업 확대 건의 등에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국가핵심기술의 약 31%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기술 혁신의 중심”이라면서 “독보적인 기술력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토대로 글로벌 무대에서 자웅을 겨루는 중견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혁신을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한샘 “썸페스타 인기상품이 990원부터”

창립 53주년 기념 이벤트 ‘99딜’

한샘이 창립 53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대표 리빙 페스티벌 ‘썸페스타’의 대미를 장식하는 할인 이벤트 ‘99딜’을 진행한다.

10일 한샘에 따르면 99딜은 썸페스타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상품을 990원부터 판매하는 이벤트로 11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는 지난 53년 간 꾸준한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에게 보답하는 의미에서 마련했다. 가을 혼수나 이사, 신학기 맞이로 집꾸밈을 계획 중인 고객들이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99딜 이벤트에서는 먼저 ▲밀란100 퓨어화이트 부엌 ▲밀란100 퓨어그레

이 부엌 ▲밀란1 마이트 욕실 ▲밀란3 리버하이트 욕실 등 인테리어 공사 상품을 22%~24%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또한 ▲아임빅 수납침대 ▲바이엘 채널 불박이장 ▲샘퍼레트 책장 ▲샘키즈 수납장 ▲아카이브 거실장 ▲포레 컴포트 식탁 및 의자 ▲로이드미 EVA 11세대 올인원 로봇청소기 등 가구는 28~58% 할인하며 ▲오동나무 우드 블라인드 ▲허드 가죽 체어 등 생활용품은 990원부터 판매한다.

썸페스타는 인테리어 공사, 가구, 생활용품 분야를 총 망라한 대한민국 대표 리빙 페스티벌이다. 올 상반기 고객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약 500종의 상품을 지난 8월부터 최대 91% 할인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귀뚜라미, 콜센터품질지수 3연속 ‘우수기업’

가정용보일러 부문 선정

귀뚜라미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3 콜센터품질지수(KS-CQI)’ 조사에서 가정용보일러 부문 3년 연속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10일 귀뚜라미에 따르면 스마트하고 쾌적한 고객만족 서비스 제

공을 위해 콜센터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상담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제도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4시간 365일 접속할 수 있는 ‘귀뚜라미보일러 카카오톡 채널’은 높은 편의성을 바탕으로 고객 서비스 혁신을 이끌고 있다. 특히 ‘A/S 접수하기’ 메

뉴를 통해 대기시간 없이 간단하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 보일러 관련 문의가 집중되는 동절기에도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귀뚜라미보일러 카카오톡 채널은 서비스 도입 5년 만에 업계 최대인 가입자 수 35만명을 달성했다. 고객센터 전체 A/S 접수량의 30%를 귀뚜라미보일러 카카오톡 채널에서 소화하며 상담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